

보도해명자료 (13. 10. 2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가짜석유 식별제에 독성물질(13.10.24, 동아일보)

1. 기사내용

-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독물로 규정되어 유해성 문제가 제기된 브롬화합물 함유 식별제(GFI사의 페트로마크K-1)를 내년부터 모든 등유에 첨가할 계획

* 식별제 : 가짜석유 적발 등을 위해 등유·부생연료유에 '00년부터 첨가

2. 등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보도내용 중 “산업통상자원부는 식별제를 선정해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등유에 이를 첨가하도록 할 계획이다”와 “검출된 브롬성분이 법정 기준치 이하라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, 식별제 선정과정이 2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”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 - 가짜석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새로운 식별제 도입(기존 식별제와 달리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)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, 현재까지 페트로마크 K-1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바 없음
 - 도입절차 진행중에 인체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
 - 향후, 연구용역 결과와 국내외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
- 또한, 보도내용 중 “브롬화합물이 유럽연합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”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
 - 모든 브롬화합물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페트로마크 K-1의 경우, 유럽의 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’(REACH)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나한균 사무관(02-2110-4893)